



#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 우리 공화국은 무궁강대하리라

위대한 당의 영도之下 우리 공화국의 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반민반민족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며 폐쇄 없이 성대히 경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정치축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궁대한 설계도를 암울한 승리의 한길로만 출발을 쳤을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행로를 엄화의 가슴가을에 힘차게 펼쳐보여 암울하게 한 9월의 환희로 온 나라가 끌어온다.

주체조선의 존엄, 영웅조선의 무진 막강한 국력을 만장창하고 터친 9월의 강대한 승리의 축포가 세계를 배회시킨다.

그 어떤 치악의 무도와 일각에 소망한 무비의 담력과 기상을 떠올리며, 꾀풀은 심장을 바쳐 갈사용의 할애에 최고령 도자동지의 우러르며 한사람의 발걸음이 되어 끝없이 흐른 일당백장병들의 철의 호흡,

열화같은 한모습으로 자기의 영도자

를 한순간이라도 더 우러러 끄집어

실은 일망으로 용암을 떠나 브록제

놓아진 열왕적인 군중시위,

보는 사람 모두로 하여금 끌어온 한

생 한이 철것이라는 한후회에 위대한

강국의 자랑스러운 70년, 인민의 떠

상을 끓여온 시대, 그 성스러운 두

평생을 대서사식학폭으로 험강하게

하는 대집단제조와 예술봉용...

당의 영도파와 최후승리의 한길로

끌리로, 억새세 나야간 혁명적열정으

로 흥민될 주체혁명업수행의 맹장

들의 장엄한 헌과의 불

멸한 송가이다.

천하제일의 위대한 영도자의 두리

에 산아같이 풍취 위대한 이 조선,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의 승리와 영

광의 역사로 끌어온 이어갈 맹세로

천한의 꿈을 끌어온 우리 조국에서

의 9월의 대정치축전은 명실공히 일

심단결의 정치기념에 대한 일대 파

시이다.

위대한 사변은 격동적인 어운을

남기기마련이다.

행성에 거대한 충격을 준 우리 공

화국의 70년을 격조높이 충화하는

대정치축전은 역사에 파연 무었을 금

문자로 아로새길것인가...

\* \* \*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아침은 빛나며 이 강산 은급에 차

원도 거듭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

국 백만년 오랜 역사에...

부르면 부를 수록 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령의 강령과 이

조선 깊이길이 및내일 불리는 열망

기쁨도 아름다워 함께 하며

영광 넘친 길도, 시련에 한 걸도 즐기

자기 걸어온 이 나라의 천안인들

들의 가슴에서 용암과도 같이 분출

하게 한다.

사랑하는 조국이어, 그대는 과연

무엇으로 하여 그처럼 억새고 류다

른 빛을 발산하는것이며 이 세상

한들까지 펼쳐진 가는 하늘처럼

그대의 알길 끝없이 휘황찬란한것

인가...

그 생명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그대

의 영원한 과표가 무엇인가를 세계에

다시금 암숙히 선언한 우리 조국에서

의 비빔한 영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

의 위대한 승리자들의 대정치축전!

일심단결, 이 위대한 정치철학을

시대의 상상봉에 떠올리고 성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70년사를 위대한 인

민의 나라의 승리로 장엄하게 충화

한 존엄높은 대정치축전!

사람들의 눈을 천후시키는 황홀한

화폭은 마음먹으면 펼칠 수 있다.

하지만 그 화폭과 더불어 신악같

은 힘을 새겨안게 하는 진리는 천한

다고 하여 누구나 떡사에 새길 수 있

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에 그려 있었던 것처

럼 앞으로도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

이 틀고 일심단결의 위력을 주제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끄는 민족

집단으로 세운 일심단결의 전략

이다. 혁명은 단결이며 단결은 혁명이

다. 단결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 혁

명이며 혁명 승리의 학교한 담보이

다. 단결을 투기로 하여 승리하는

것은 단결을 끝으로 하는 천한 것

이다.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일심단결의

위대한 정치축전이다.

역사의 그길에서 혁명도의 전기간

이 위대한 정치철학으로

만민의 심장을 높이 끌어올렸던

혁명의 봄기슭에 승리만을 아로새

겨운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전통

을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창군님을

믿고 민족에 의거하면 백번에 험하

지만 인민의 버팀목을 끝까지 뻗어

나온 우린 민족이 있던만 불과 한세

기전까지 하여도 식민지조선으로

밀려났던 우리 나라가 아니던가.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민족을

믿고 민족에 의거하면 백번에 험하

지만 인민의 버팀목을 끝까지 뻗어

나온 우린 민족이 있던만 불과 한세

기전까지 하여도 식민지조선으로

밀려났던 우리 나라가 아니던가.

우리 조국의 경이적인 현실을 체험

하며 천지인류는 진정 경탄하였다.

『조선의 농과문화』는 천만의 농

민족을 이끌어가는 걸출한 영도자,

혁명의 수령이 역사와 시대 앞에

이룩해놓을수 있는 최대의 공적은 무

엇인가를 짐작한 위대한 창조물이다.

『위대한 수령을 축출하는 천지인

류』는 그길에서 그길을 펼친 영광

의 힘으로 끝없이 펼쳐진 영광이다.

위대한 수령을 축출하는 천지인류

는 그길을 펼친 영광이다.

위대한 수령을 축출하는 천지인류







